



국제 농업 정보: 미국



1 인플레이션방지법을 통한 위기 농가 지원¹⁾

- 미국 농무부는 인플레이션방지법을 통해 재정적 위험에 처한 농가들이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농무부는 인플레이션방지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일환으로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한 농가에게 31억 달러를 지원하고,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환경 보존(conservation)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시행하기로 함.

※ 인플레이션방지법은 농업자원청(USDA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NRCS))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환경 보존 프로그램에 펀드를 제공

▮ 인플레이션방지법을 통한 농가 지원 ▮

구분	법안명/프로그램명	규모
대출 농가 지원 (Loans)	Section 22006 Inflation Reduction Act	31억 달러
	Section 22007 Inflation Reduction Act	22억 달러
환경 보존 (Conservation)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84.5억 달러
	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49.5억 달러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32.5억 달러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14억 달러
	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10억 달러

- 대출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인플레이션방지법안 22006절과 22007절이 있으며, 이들은 농무부에서 대출받았거나 대출 대상에서 소외된 농가들을 지원하는 법안임.
 - 농무부는 민간대출을 받기에 신용이 낮은 115,000 농가에 직접 및 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 (법안 22006절)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t, FSA)의 직접/보증 대출을 받은 농가 중 재정적 위험으로 인해 영농 중단에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 지원받음.

1) 미국 농무부의 “USDA Seeking Public Comment on a New Provision to Provide Assistance to Agricultural Producers Who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2022.10.13.)과 “USDA Providers Payments of nearly \$800 Million in Assistance to Help Keep Farmers Farming”(2022.10.1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미국

- (법안 22007절) 농무부가 지원하는 대출에서 소외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2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1억 달러), 토지 접근성 개선(3억 달러), 미래 세대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소수자 지원 기관(minority serving institutions)에 대한 지원(2.5억 달러) 등이 포함

- 8억 달러의 자금은 이미 약 13,000 농가에 지원되었으며, 추가로 6,600만 달러가 지원될 것임.
 - 6억 달러는 농업지원청에서 받은 직접/보증 대출의 상환이 60일 이상 경과된 11,000개의 농가에 지원되었음. 약 2억 달러는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대출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였으나, 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100 농가에게 지원됨. 이들은 대출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금 환급, 사회적 지원금, 연방 지원금 등의 압류를 더 이상 겪지 않게 되었음.
 - 이번 지원 발표로 팬데믹 지원 펀드에서 약 6,600만 달러가 약 7,000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며,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 재해휴경지원금(disaster-set-aside)을 받은 농가들로 대출 상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10.3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촌 인터넷 인프라 개선 계획²⁾

- 농촌은 인프라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이 낮아 농촌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농촌에 광대역 인터넷을 공급하여 소규모 도시, 지역 내 기업 등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농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인프라 법안 협의에 따라, 650억 달러를 인터넷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기로 결정함. 미국 내 많은 인프라가 노후화됨에 따라 수십 년간 인프라 수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ing a better America)'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시행하고자 계획함.
 - 양당 협의에 따른 인프라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은 교통,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2) 미국 농무부의 "Biden-Harris Administration Provides \$759 Million to Bring High-Speed Internet Access to Communities Across Rural America"(2022.10.27.)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미국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미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인프라 법안은 총 37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주무 부처가 농무부인 프로그램은 43개임.

※ 미 백악관 홈페이지의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소개 참조

- 인프라 법안에서 농무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향상(Broadband), 친환경 에너지(Clean Energy and Power), 회복력 강화(resilience)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회복력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으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산림청(Forest Service)임. 이외에도 농촌설비청(Rural Utilities Service), 자연자원보존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는 농촌 인터넷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ReConnect 프로그램의 3번째 펀딩을 활용하기로 함.

- ReConnect 프로그램은 광대역 인터넷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 인터넷 인프라 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지원자※는 지원금으로 해당 지역 내에 광대역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함. 이번 세 번째 펀딩에서는 16억 달러가 광대역 인터넷 설치에 지원될 것임.

※ 주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아래에 제시(ReConnect 프로그램 예시)되는 예시들도 기업 주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임.

- ReConnect 프로그램 중 7억 5,900만 달러는 대출 및 융자 형태로 지원하기로 확정됨.

- (노스캐롤라이나주) 1,750만 달러를 활용하여 100여 개의 기업, 76개 농가, 22개 교육 시설을 활용하는 지역 내 인구에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함. 이 지역 내에는 원주민 공동체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공동체들이 포함되어 있음.
- (미네소타주) 1,260만 달러를 투입하여 171개 농가, 103개 기업, 교육 시설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이 지역 내에서 계약자가 같은 주소에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한다면 인터넷 이용 비용을 올리지 않고, 초기에 계약한 가격으로 계속해서 제공하기로 협의함.
- (콜로라도주) 1,870만 달러를 투입하여 지역 내 898개 농가, 110개 기업, 17개 교육기관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다른 주에서도 49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촌 주민들과 원주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11.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